

2025년1월1일 새해 첫날을 백두산 천지에서

<백두산설경 + 윤동주시인 + 하얼빈빙등제 + 일제731부대 + 안중근의사>



여행기획자의 프로그램 소개

2025년 새해 첫날 백두산 천지에 오르도록 예정된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얗게 눈덮인 천지의 모습은 색다른 감흥을 줄 것이며 새해를 맞아 좋은 기운을 받고 마음을 정돈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처음 발을 딛는 도시는 중국의 연길입니다. 연길은 수많은 조선족 동포들의 고향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主都)입니다. 하지만 연변이 자치주의 주요 도시로 성장한 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 선조들이 처음 자리잡은 곳은 연길의 옆 동네 용정입니다. 우리는 간도 땅 용정에서 우리 민족인 조선족의 이주 역사를 짚어봄과 함께 우리에게 아련한 시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너무도 젊은 시절에 죽임을 당한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윤동주 시인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이정표 하나 없어 찾기 힘들고 길이 좁아 버스도 진입이 어려운 윤동주 시인의 묘소까지 찾아가는 흔치 않은 시간입니다.

하얼빈은 중국의 동북쪽 끝단 흑룡강성의 주도로서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러시아의 동청철도 건설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여 아직도 러시아가 건설한 근대 도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건설된 **중앙대가와 소피아성당**을 보고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가 극대화된 세균전 연구기지 **731 부대**도 탐방합니다. 그리고 하얼빈에는 조선과 만주 침략의 원흉 중 하나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의사의 의거 장소**가 있어 우리에게 더욱 뜻깊은 장소입니다. 또한, 하얼빈에는 세계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올해로 61년 내력의 **하얼빈 빙등제**가 펼쳐져 겨울여행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경도시 도문에서 바라보는 **두만강**과 바로 앞 북한땅의 모습과 하얼빈의 **호랑이** 연구와 번식을 위한 기지도 흔치 않은 탐방지가 될 것입니다.

여행의 개요와 신청방법

* 여행날짜 : 2024년 12월 31일(화) ~ 1월 5일(일) (5박 6일)

* 여행장소 : 중국 길림성 (연길시 → 도문시 → 용정시 → 백두산) → 흑룡강성 (하얼빈시)

* 모집인원 : 10명~20명 (최소 출발인원은 10명이며 신청자가 적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교 통 편 : 항공, 전용버스

* 참 가 비 : 1,850,000원 (항공, 현지교통, 숙박,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 여행일정 전체 포함. 옵션 및 쇼핑센터 전혀 없음. 단, 생수, 술, 간식 등 개인 지출은 중국 인민폐로 각자 준비)

* 1차 모집마감 : 2024년 11월25일

(출발확정은 12월2일 이전에 하며, 모집인원 미달로 취소될 시 예약금 전액 환불합니다)

* 여행인솔 : 최정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장, 한신대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문의사항 : 최정규 이메일(jgchoe@hanmail.net)이나 전화(010 2432 3604) ※다른 일정으로 인해 곧바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 일반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처럼 현지 가이드가 모든 것을 챙겨주는 여행이 아닙니다. 숙소에서도 식당에서도 탐방지에서도 부족한 것은 스스로 부딪쳐 해결해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 현지 여행사에서 여행의 모든 것을 셋팅해 놓은 여행이 아닙니다. 일반 여행사들의 패키지여행은 매주 같은 패턴으로 숙소와 식당, 탐방지, 차량, 쇼핑센터를 준비해놓아 똑같이 수십, 수백 번 반복하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에 거의 모든 것이 변동없이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공정여행은 1~2년에 1~2회 진행되는 여행이기에 현지에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배낭여행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흐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여행의 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현지사정에 의해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더 풍성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 여행사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일정표에 써 있는 내용보다 실제 여행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반해 저희 공정여행은 일정표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더 풍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소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행에서의 고생은 없애도록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정상 식사시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 숙소는 2인1실 기준입니다. 동행이 있다면 함께 방을 배정하고, 혼자 신청하면 동성의 다른 참가자와 함께 방배정합니다. 방을 혼자 쓰고 싶다면 싱글차지 20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환불규정

~11월25일 취소시 - 전액환불

11월26일~11월30일 취소시 - 총 참가비의 10% 공제 후 환불

12월1일~12월7일 취소시 - 총 참가비의 20% 공제 후 환불

12월8일~12월14일 취소시 - 총 참가비의 30% 공제 후 환불

12월15일~12월21일 취소시 - 총 참가비의 40% 공제 후 환불

12월22일~12월28일 취소시 - 총 참가비의 50% 공제 후 환불

12월29일~ 취소시 - 환불없음

* 신청방법

1. 모집 이메일이나 모집 문자메세지 가장 아래의 신청폼에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2. 여권의 사진 나온 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010 2432 3604)나 이메일(jgchoe@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전체면의 모든 글자가 빠짐없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며 맨 아래 문자 두 줄까지 나와야 합니다)
3. 신청서에 써주신 휴대폰 문자로 입금계좌를 알려드리면 예약금 850,000원을 입금해주세요.
4. 12월2일 이전에 출발 여부를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발 확정되면 12월5일까지 잔금 1,00,000원을 입금해주세요.

여행일정표

	여 행 일 정
1 일 차	인천공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공항 항공이동 (직항 2시간20분) ※오전11시경 인천공항 집합 백두산의 배후 도시, 이도백하로 이동 (버스2시간30분) 이도백하 읍내 호텔 숙박 (2인1실) 

[새해 첫날 백두산 천지에 서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북쪽코스**로 탐방

- 천지 오르기 (승합차 탑승)
- 장백폭포 탐방
- 백두산 노천온천지구 보기
- 백두산 원시삼림 트레킹

이도백하 → 연길 이동 (버스 2시간30분)

연길시내 호텔 숙박



[보고싶었던 두만강, 그리고 북한땅]

- 연길의 명소, 새벽 **천변시장** 탐방

연길 → 조중 국경 도문으로 이동 (버스 1 시간)

- 두만강공원에서 **두만강과 북한땅** 보기(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도문 → 간도의 중심이었던 용정으로 이동 (버스 1 시간 3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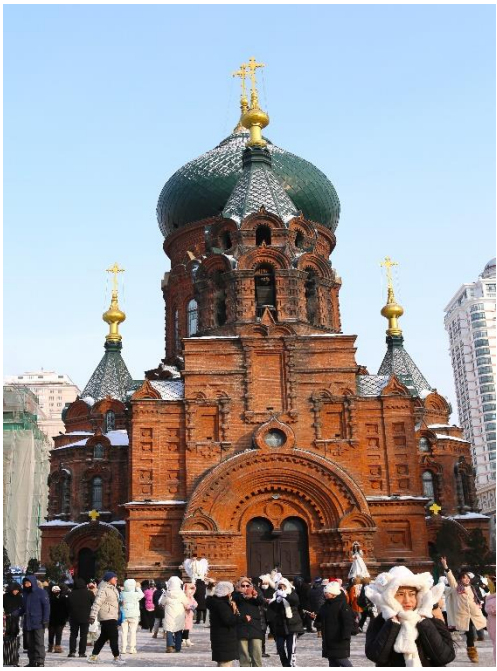
[용정의 역사는 곧 독립운동의 역사]

- 조선민족 간도 이주 역사가 시작된 곳, **용두레우물**
- 민족 교육의 현장을 찾아 그 의미를 새겨본다 (교내는 진입 불가)
 - ▶ 민족교육의 중심, **대성중학교**
 - ▶ 간도 최초의 근대민족교육기관, **서전서숙 옛터**
- 일제 침략의 첫 본거지, **간도 일본총영사관** (내부는 진입 불가할 수도 있음)
- 기독교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이 맞물린 마을, **명동촌**
 - ▶ 윤동주생가 ▶ 명동학교 ▶ 명동교회 ▶ 송몽규생가
- 간판도 없어 찾는 이 없는 **윤동주와 송몽규 묘소** 찾아가기

연길시내 호텔 숙박



4 일 차	[세계를 흔든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 길림성 연길 → 흑룡강성 하얼빈까지 만주별판 보며 기차 이동 (고속열차 4시간) ●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기념관 탐방과 의거장소 보기 [세계 3대 겨울축제] ● 60년 역사의 겨울 축제, 하얼빈 빙등제 하얼빈 시내 호텔 숙박   
5 일 차	[옛 러시아가 건설한 고색창연한 하얼빈] ● 제정 러시아가 하얼빈에 지은 비잔틴양식의 성소피아성당 ● 러시아 지배시기에 지어진 서양 건축 거리, 중앙대가 ● 중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자 빙등제의 발상지,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숨결어린 자오린공원 ● 백두산에서 발원한 또 하나의 강, 송화강 겨울풍경보며 걷기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가장 추악한 다크투어리즘 현장] ●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생체실험 장소, 731부대 유적지 탐방 하얼빈 시내 호텔 숙박

	  
6 일 차	[중국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우리민족 그 인물의 흔적을 찾다] ●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내 정율성기념관 [시베리아호랑이는 멸종된 한반도호랑이와 같은 유전자] ● 시베리아호랑이 사육 번식 연구기지, 동북호림원 사파리투어 하얼빈공항 → 인천공항 항공이동 (직항 2시간15분) ※저녁7시30분경 인천공항 도착 

※ 기상악화, 천재지변, 부득이한 교통상황, 기타 현지상황의 변동 등으로 바뀌거나 취소되는 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